

2023 수능특강 독서 인문예술 1

-구조주의 언어학과 인류학

오르비 Cogito ergo sum(1105120)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2023 수능특강 독서의 모든 지문(개념학습을 제외한 56개 지문)을 하나씩 설명하는, 시리즈로 짝 이어지는 칼럼입니다. 연계 교재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 들어가며

수험생일 때를 떠올려 보면, 연계 교재 분석서라든지 여타 교재들에 상당히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재의 내용, 문제, 설명 등에 있어 질이 다소 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관심하게 되고, 소재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 시리즈를 기획했으며, 적어도 **연계 교재의 소재만큼은 이해하고** 가자는 느낌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들어가며'는 내용이 모두 같습니다.)

II. 인문예술 1 - 구조주의 언어학과 인류학

(1) 소쉬르가 말하는 언어 - 랑그와 파롤

랑그 : 체계
파롤 : 체계 속
각자의 말

구조주의 창시자로 불리는 소쉬르는 인간의 사고가 언어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언어를 ㉠랑그와 ㉡파롤로 구분하였다. 랑그는 언어의 체계나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다. 그는 랑그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맺어진 사회적 약속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발화자는 랑그에 종속된 가운데 랑그에 따라 발화할 뿐 혼자서 랑그를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다. 파롤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행위로 사람마다 다른 형태를 띠고, 랑그와 달리 쉽게 변화한다. 가령 동일한 언어 규칙을 바탕으로 인간들이 대화를 나누더라도 사람마다 발화의 형태, 모습은 모두 다르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양태를 띠는 개인의 발화가 파롤인 것이다. 소쉬르는 랑그는 같은 언어를

항상 도입부는 중요합니다. '소쉬르'라는 학자를 언급하고, 그의 주장을 제시합니다. 견해 / 주장은 언제나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사고가 언어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랑그'와 '파롤'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나만의 말'로 정리하면 랑그 = 체계, 파롤 = 체계 속 각자의 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회적 구성원 - 공동체 구성원 - 사회적 약속**은 모두 랑그와 같은 맥락의 단어들입니다. 사회가 만들어 낸 언어의 체계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쉬운 예시를 들면, 우리는 **'한국어'**라는 체계 안에서 모든 말을 만들어 냅니다. 이 체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합의된 것이고, 우리가 이를 바꾸거나 새로운 체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쓴다고 해서 모두 같은 말만 하나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든, 어떤 사물을 정의하든 각각이 **말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 말은 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녕하세요'**라는 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런 괴기한 장면은 현실에서 보기 어렵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2) 소쉬르가 생각하는 언어학

모두 다르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양태를 띠는 개인의 발화가 파롤인 것이다.** 소쉬르는 랑그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파롤은 랑그가 개인들의 행위로 인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언어 활동의 본질은 **개인의 구체적 언어 활동이 아닌 언어를 지배하는 보편적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언어학에서 탐구해야 할 대상은 파롤이 아니라 랑그**라고 주장하였다.

랑그는 언어의 체계이니 **당연히**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을 테고, 파롤은 개개인의 발화이니 랑그(체계)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시한 것뿐입니다.

소쉬르가 파롤이 아닌 랑그에 주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쉬르가 생각하기에는 보편적 체계를 탐구하는 것이 더 합당했습니다. **'자신만의 말'**로 이해하면, **"대부분 학문은 보편적 체계를 세우길 원하지."**라는 말도 할 수 있겠네요.

랑그와 파롤을 모두 제시했지만, 소쉬르는 랑그에 주목한다는 말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랑그에 초점을 맞추고 지문을 전개하겠죠. 결국, 파롤은 랑그를 설명하기 위해 끌어온 **소재일** 뿐입니다. 두 가지 모두 언어의 구성 요소이므로 설명을 해 놓긴 했지만, 글쓴이는 결국 랑그를 설명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는 이전 칼럼의 2020학년도 수능 독서 [베이즈주의의 조건화 원리]를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텐데, 그 지문에서도 결국 **'베이즈주의자'**가 핵심이었습니다. **'전통적 인식론자'**는 설명이 잠깐 등장하고 나머지 문단에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3) 소쉬르 이전의 언어학자와 소쉬르의 차이

기호 → 기의(개념)
+ 기표(청각)

소쉬르 이전
: 기의 → 기호

소쉬르
: 기호 → 기의

랑그는 수많은 기호로 구성된다. 소쉬르는 기호에 결합되어 있는 것은 사물과 명칭이 아니라, 개념과 청각 이미지라고 보았다. 그는 기호를 구성하는 개념과 청각 이미지를 각각 기의와 기표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즉 기호는 기의와 기표의 연합체인 것이다. 소쉬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대상을 가리키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이미 존재한다고 보았다. 현실 세계에 실재가 이미 존재하고 인간이 사고를 통해 실재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가진 상태에서,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기표를 만들어서 개념과 결합시켰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소쉬르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명확한 기의가 없으므로 인간이 대상을 명확히 인식할 수 없고, 올바른 사유를 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말이 없다면 현재 사과라고 여겨지는 과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말이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차근차근 살펴보면 쉽습니다. 사물과 명칭을 합쳐 '기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 당연히 주목해야 하고, 뭔가 나의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 보니, 기호를 기의와 기표로 정의했는데, 기의는 개념이고 기표는 청각 이미지입니다. 결국, 기호 = 사물 + 명칭이 아닌, 기호 = 기의(개념) + 기표(청각 이미지)와 같이 정의했다는 뜻입니다.

이 청각 이미지라는 말에 당황하면 안 됩니다. 사과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빨간색을 띠는 과일의 한 종류'라는 개념과 사.과. 라는 발음이 만나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기서 사과라는 '글자'를 떠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언어를 설명하고 있지, 이를 글로 표현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아래 내용을 더 읽고 '나만의 말'로 정리하면, 소쉬르 이전의 학자들은 개념 이후에 언어 체계가 있다고 봤고, 소쉬르는 언어 체계 이후에 개념이 있다고 봤습니다.

개념이 기의인 건 알겠는데 언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하실 겁니다. 랑그를 이루는 것이 기호이기 때문에, 기호가 있었다면 랑그, 즉 언어의 체계 역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기의, 기표, 기호 등의 말은 어렵지만, 개념과 언어 체계를 말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겠죠. 항상 강조하지만 '나만의 말'로 이해하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4) 소쉬르가 생각하는 언어 구조와 인간의 사고 간의 관계

기
→ 다른 것들과
맞물려 결정
소쉬르가 랑그를 더
중시한 이유

소쉬르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기표와 연결되는 기의는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기의는 연결된 기표와 다른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정해질 뿐이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기표와 연결된 기의는 사과의 본질이 아니라 과일을 나타내는 수많은 기표, 즉 배, 감, 귤 등이 아닌 과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뿐이다. 사과라는 기표가 나타내는 의미는 언어 구조 안에서 다른 사항들과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 소쉬르는 이 때문에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는 '나방'과 '나비'가 각기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로 존재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두 가지 곤충을 모두 '파피용'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우리가 '나방과 나비가 한 마리씩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때, 둘을 구분하는 단어가 없는 프랑스어를 쓰는 화자는 '파피용이 두 마리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가 자의적으로 연결된다고 봤는데, 이 '자의적'이라는 말을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자의적'이라 함은,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할 때를 일컫는데, 이 경우에는 특정 문화권의 언어 체계가 기표와 기의를 알아서 연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읽어 보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의, 즉 개념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상식'과 다소 맞지 않는 듯하니, 낯선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어야 합니다.

기의는 어떤 대상(기표)의 실질적 의미를 바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소 낯선 이야기인데, 그래서 다음 문장에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는, 아까도 말했지만 '빨간색을 띠는 과일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소쉬르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과일이 아닌 과일을 사과라고 정의하네요. 다른 기표와의 차이를 통해 정의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로 어떤 대상을 정의한다면, 이는 언어의 체계 안에서 개념(기의)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언어 구조 안에서 - 관계에 의해 등이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나만의 말'로 이해하면, 기의는 다른 대상과 맞물려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소쉬르가 왜 랑그를 더 중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처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언어의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된다. 기억나시나요? 딱 그 이야기입니다.

(5) 인간의 사고는 언어의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고 본 소쉬르

두 마리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쉬르는 대상이 나타내는 개념이나 인간의 사고보다 언어가 먼저 존재하며,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한, 이러한 언어의 구조에 담긴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소쉬르의 사상을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언어 전체의 구조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학문인 구조주의 언어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앞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소쉬르가 언어의 체계인 랑그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대로, 인간의 사고는 언어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고 제시합니다.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 인간의 사고보다 언어가 먼저 존재 - 언어 구조에 종속 모두 다 같은 맥락입니다. 수능 국어 독서는 이런 식으로 핵심만 짚으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출제됩니다.

(6) 소쉬르의 구조주의를 인류학에 적용한 레비스트로스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를 인류학에 적용하였다. 모든 음소들은 '비음인가 아닌가', '모음인가 자음인가'와 같이 두 가지 대비되는 요소가 짝을 이루는 물음을 통해 분류된다. 레비스트로스는 음운론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이항 대립을 바탕으로 각 집단이 갖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였다. 그는 친족의 기본 구조는 아버지와 아들, 외삼촌과 조카, 남편과 아내, 아내와 아내의 형제라는 네 가지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관계는 친밀함과 소원함이라는 이항 대립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모든 집단에 공통적

소쉬르의 이론을 모두 설명하고, 또 다른 학자인 레비스트로스가 등장합니다. 사실이 지문은 주제통합형 지문처럼 (가)와 (나)로 각각 분리하여 제시했어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음운론에서 활용하는 체계를 친족의 기본 구조, 즉 인류학에 적용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친족은 네 가지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계는 친밀함과 소원함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썼던 글을 받아들여서 잘 체화했다면, 레비스트로스를 설명한 다음 부분은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매년 강조하는 '대비되는 짝'을 정말 수없이 많이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부분에서도 친밀함 vs. 소원함이라는 '대비되는 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 보편적 체계를 설명한 레비스트로스

[A] 어져 있고, 이들 관계는 친밀함과 소원함이라는 이항 대립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모든 집단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 둘 중 하나만 친밀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아내와 아내의 형제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예를 들어 멜라네시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친밀하지만 외삼촌과 조카는 심하게 대립하고, 트로브리안드 섬에서는 부부 사이는 친밀하고 개방적이지만 아내와 아내의 형제 사이는 좋지 않았다. 그는 모든 사회 집단이 이러한 이항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집단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레비스트로스는 이처럼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가 또 제시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 중 하나만 친밀한 관계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 아내와 아내의 형제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항 대립에서,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둘째 치고, 친족 관계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둘 다 친할 수도 있고 둘 다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나?”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문과 배경 지식이 상충한다면, 반드시 지문의 정보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친밀하다고 주장했고, 예 시도 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들어도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또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 공통적 - 모든 사회 집단이~ 등과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자신만의 말’로 이해하면, 레비스트로스는 자신의 이론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8) 레비스트로스가 본 친족 간의 감정

이항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집단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레비스트로스는 이처럼 각 사회는 친족 사이에 키워야 할 표준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체계화하고 있고, 집단에 속한 이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감정을 내재화한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내면에서 우러나온 감정이 아니라 사회 구조 안에서의 ‘역할 연기’에 불과한 것이었다. 친족 간에 가져야 할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정해놓음

레비스트로스는 사회가 친족 간에 가져야 할 표준적인 감정을 체계화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한없이 존경합니다. 이런 따뜻한 감정을 레비스트로스는 내면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정해져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자신만의 말'로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펼쳐나간다면, 어떤 내용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설령 그 분야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수능 국어 독서에서는 **지문에 제시된 만큼만 이해하면 됩니다.**

(9) 레비스트로스가 생각하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

레비스트로스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문화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선과 악,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등의 대립쌍을 바탕으로 인간의 문화를 이해하였다. 그는 언어를 문화의 조건으로 보고 언어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는데, 음성 언어를 순수한 것으로, 문자 언어를 저열한 것으로 보고 문자 언어가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는 유럽인에게 문자를 배운 브라질의 남비과라족이 문자 사용 수준으로 사람들의 위계를 정하는 것을 발견하고, 문자가 그들의 순수한 사회를 타락시켜 놓았다고 비판하였다.

음성 언어: 순수
문자 언어: 타락

일단, 앞에 제시된 견해 그대로,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의 문화를 대립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그에 더해 언어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음성 언어를 순수한 것으로, 문자 언어를 타락한(저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 문자 언어를 부정적으로 봤는지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자 사용으로 위계가 나뉘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읽어 보니 **위계로 인해 순수한 사회가 타락했다**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조선 시대에 한글이 나오기 이전에 한자를 알고 있는 양반과 그렇지 못한 평민(천민)으로 신분이 구분되지 않았나요? 정확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말'로 이해하기.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익숙하실 겁니다.

(10) 구조주의 이론의 의의

소쉬르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이론은 언어 공동체나 집단의 보편적인 사고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인간이 사회 규범을 수용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과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 문단은 딱히 말할 게 없으나, 지문의 구조를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마지막 문단에는 **이론의 한계 / 전망 / 의의** 등을 제시합니다. 이는 논지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활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지문에서, 논지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지문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미출제요소'를 짚지 못하고 그냥 풀기만 한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기출 문제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III. 마치며

꽤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쓰는 글이 단순한 해설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어 지문을 볼 때, 어떤 사고로 내용을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개념들을 떠올려야 하는지 모두 글에 나와 있습니다. 단 한 지문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수능을 대비하시는 학생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좋은 칼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마치며'도 내용이 모두 같습니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조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소쉬르는 인간의 사고가 언어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언어를 ㉠랑그와 ㉡파롤로 구분하였다. ㉠랑그는 언어의 체계나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다. 그는 랑그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맺어진 사회적 약속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발화자는 랑그에 종속된 가운데 랑그에 따라 발화할 뿐 혼자서 랑그를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다. ㉡파롤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행위로 사람마다 다른 형태를 띠고, 랑그와 달리 쉽게 변화한다. 가령 동일한 언어 규칙을 바탕으로 인간들이 대화를 나누더라도 사람마다 발화의 형태, 모습은 모두 다르다. 이처럼 ^{랑그}각양각색의 양태를 띠는 개인의 발화가 파롤인 것이다. 소쉬르는 랑그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파롤은 랑그가 개인들의 행위로 인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언어 활동의 본질은 개인의 구체적 언어 활동이 아닌 언어를 지배하는 보편적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언어학에서 탐구해야 할 대상은 파롤이 아니라 랑그라고 주장하였다.

랑그는 수많은 기호로 구성된다. 소쉬르는 기호에 결합되어 있는 것은 사물과 명칭이 아니라, 개념과 청각 이미지라고 보았다. 그는 기호를 구성하는 개념과 청각 이미지를 각각 기의와 기표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즉 기호는 기의와 기표의 연합체인 것이다. ㉢소쉬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대상을 가리키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이미 존재한다고 보았다. 현실 세계에 실재가 이미 존재하고 인간이 사고를 통해 실재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가진 상태에서,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기표를 만들어서 개념과 결합시켰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소쉬르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명확한 기의가 없으므로 인간이 대상을 명확히 인식할 수 없고, 올바른 사유를 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말이 없다면 현재 사과라고 여겨지는 과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소쉬르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기표와 연결되는 기의는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기의는 연결된 기표와 다른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정해질 뿐이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기표와 연결된 기의는 사과의 본질이 아니라 과일을 나타내는 수많은 기표, 즉 배, 감, 귤 등이 아닌 과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뿐이다. 사과라는 기표가 나타내는 의미는 언어 구조 안에서 다른 사항들과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 소쉬르는 이 때문에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는 ‘나방’과 ‘나비’가 각기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로 존재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두 가지 곤충을 모두 ‘파피용’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우리가 ‘나방과 나비가 한 마리씩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때, 둘을 구분하는 단어가 없는 프랑스어를 쓰는 화자는 ‘파피용이 두 마리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쉬르는 대상이 나타내는 개념이나 인간의 사고보다 언어가 먼저 존재하며,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한, 이러한 언어의 구조에 담긴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소쉬르의 사상을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언어 전체의 구조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학문인 구조주의 언어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랑그 : 체계
파롤 : 체계 속
각자의 말

소쉬르는 각자의 말보다 체계에 주목

기호 ⇒ 기의(개념) + 기표(청각)

소쉬르 이전 : 기의 → 기호

소쉬르 : 기호 → 기의

기의 → 다른 것들과 맞물려 형성

소쉬르가 랑그를 더 중시한 이유

[A]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를 인류학에 적용하였다. 모든 음소들은 ‘비음인가 아닌가’, ‘모음인가 자음인가’와 같이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가 짝을 이루는 물음을 통해 분류된다. 레비스트로스는 음운론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이항 대립을 바탕으로 각 집단이 갖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였다. 그는 친족의 기본 구조는 아버지와 아들, 외삼촌과 조카, 남편과 아내, 아내와 아내의 형제라는 네 가지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관계는 친밀함과 소원함이라는 이항 대립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모든 집단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 둘 중 하나만 친밀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아내와 아내의 형제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항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집단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레비스트로스는 이처럼 각 사회는 친족 사이에 키워야 할 표준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체계화하고 있고, 집단에 속한 이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감정을 내재화한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내면에서 우러나온 감정이 아니라 사회 구조 안에서의 ‘역할 연기’에 불과한 것이었다.

음운론의 본리
→ 친족 관계

친족 간에 가져야 할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정해줌

레비스트로스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문화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선과 악,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등의 대립쌍을 바탕으로 인간의 문화를 이해하였다. 그는 언어를 문화의 조건으로 보고 언어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는데, 음성 언어를 순수한 것으로, 문자 언어를 저열한 것으로 보고 문자 언어가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는 유럽인에게 문자를 배운 브라질의 남비과라족이 문자 사용 수준으로 사람들의 위계를 정하는 것을 발견하고, 문자가 그들의 순수한 사회를 타락시켜 놓았다고 비판하였다.

음성 언어: 순수
문자 언어: 타락

소쉬르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이론은 언어 공동체나 집단의 보편적인 사고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인간이 사회 규범을 수용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과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01 [22002-0032] **라그 파를**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 ① ㉠은 ㉡과 달리 사회 구성원들 간에 맺어진 약속에 의해 존재한다.
- ② ㉡은 ㉠과 달리 쉽게 변화할 수 있다. 보편적인 것은 변하기 어려움. 개인의 언어 활동? 애초에 고정될 수 없음.
- ③ ㉠은 보편적인 속성을, ㉡은 구체적인 속성을 갖는다. 라그 - 보편적 체계, 파를 - 개인의 언어 활동
- ④ 모든 사람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이 개인의 언어 행위로 현실화된 것이 ㉠이다.
- ⑤ 소쉬르는 언어 활동의 본질은 ㉠에 있으므로 언어학에서 탐구해야 할 대상은 ㉡이 아닌 ㉠이라고 보았다. 소쉬르는 라그 중시

소쉬르 이론. point. 기의(개념) → 기호.
 [22002-0033] 언어 → 사고방식

02 ㉓가 소쉬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 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유사한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 언어 → 사고방식
- ② 과일들을 가리키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서로 다른 두 과일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었다. 개념
- ③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각 언어로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인식 체계가 달라진다. 언어 → 사고방식
- ④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는 언어를 쓰는 사람은 시제 구분이 없는 언어를 쓰는 사람보다 현재를 더 중시하여 소비를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언어 → 사고방식 → 행위
- ⑤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밖에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숫자와 관련된 사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언어 → 사고방식

[22002-0034]

0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데리다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보기

데리다는 기표들 간의 관계로 인해 기의가 정해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기표는 무수히 많으므로 다른 기표들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의는 영원히 결정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기의가 기표들 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들 간의 관계 속에서 계속 변화되며 그 의미의 결정이 끊임없이 지연된다고 보았다. 한편 그는 레비스트로스가 말한 이항 대립은 대등한 대립쌍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중심과 주변, 본질과 현상 등과 같은 위계가 무의식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이러한 위계질서를 해체하려고 하였다. 그가 보기에는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보다 더 순수하고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시민이 원주민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니었다. 원주민들에게는 순수나 타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이러한 구분은 서구 인류학자의 기준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그들의 사회가 순수하다거나 타락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소쉬르와의 차이점.

레비스트로스와의 차이점.

- ① 데리다는 소쉬르와 달리 기의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군.
- ② 데리다는 소쉬르와 달리 기표와 기의의 연결이 필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군.
- ③ 데리다는 레비스트로스와 달리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보다 순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군.
- ④ 데리다는 레비스트로스가 사용한 대립쌍들 안에 무의식적인 우열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군.
- ⑤ 데리다는 문자로 인해 원주민들의 순수한 사회가 타락했다는 레비스트로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군.

평가원 낚시 코드 : 자신의 바음겨로 연결할 수로 있고 안 할 수로 있다
 → 필연적이지 않다

but. 자의적 연결 → 연결된다는 가정 포함 → 연결은 필연적

[22002-0035]

04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보기

아래 표는 레비스트로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두 부족의 친족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친족 관계 \ 부족	A	B
아버지와 아들	[소원함]	[친밀함]
외삼촌과 조카	친밀함.	소원함.
남편과 아내	소원함.	[친밀함]
아내와 아내의 형제	[친밀함]	소원함.

- ① 부족 A와 달리 부족 B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친밀할 것이다.
- ② 음운론에서 음소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집단의 친족 구조를 파악한 것이다. *내용 일치*
- ③ 부족 A는 아내와 아내의 형제의 관계가 친밀하고, 부족 B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소원함~~ *친밀* 것이다.
- ④ 부족 A와 B의 친족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은 해당 부족 내의 친족 사이에 가져야 할 표준적인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내재화된 것이다.) *내용 일치*
- ⑤ 부족 A와 부족 B에서 외삼촌과 조카의 친밀한 정도는 다르지만 이를 바탕으로 부족 A와 B 중 누가 더 우월한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